

남명학파의 역사적 전개상에서 용산범국회의 의미

구진성*

- I. 서론
- II. 1636년 용산범국회 결성의 의미
 - 1. 참여 인물 현황과 당시 그들의 처지
 - 2. 인조반정 이후 동계 정은 중심의 남명학파 재편
- III. 조선말기 용산범국회 재결성과 그 의미
 - 1. 구재 정재성과 용산범국회 재결성
 - 2. 일제강점기 ‘桐溪節義’ 추숭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용산범국회는 1636년 중양절에 동계 정은을 중심으로 성립된 모임이다. 정은은 광해군 정권시절 영창대군 사건과 관련하여 대북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다가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겪어야만 했으나,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인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남명학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정은은 그의 스승 내암 정인홍의 위상을 이어받아, 인조반정 이후 이루어진 학파 내의 각종 사업에 관여했다. 이러한 정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용산범국회는 인조반정 이후 잔존한 정인홍 계열 남명학파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조반정 직후부터 여러 옥사를 거치

*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연구원 / aaqqaa9@hanmail.net

며 정인홍과 관련된 인물들이 숙청되어가던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 용산범국회가 열리던 1636년이였다. 여기에 참여한 인물 상당수가 정인홍과 관련되어 있었고, 광해군 시기 복인으로 활동한 인물도 다수를 점한다. 이들이 정인홍 계열의 남명학파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가계의 후손들이 무신란(1728)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산범국회는 1636년 첫모임 이후 오랫동안 속개되지 못했으나, 팔송 정필달이 남겨 둔 기록으로 인해 구한말 재결성될 수 있었다. 정필달의 후손 구재 정재성의 주도로 재개된 용산범국회의 지향은, 구한말·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운의 절의가 당대에 발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했던 면우 곽종석의 절의가 정운을 계승하는 측면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정운과 곽종석 모두 남명학의 주요한 계승자임을 고려할 때, 용산범국회의 지향과 활동을 통해 구한말·일제시기까지 이어진 남명학파의 존재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 주제어

동계 정운, 용산범국회, 남명학파, 인조반정, 내암 정인홍, 팔송 정필달, 구재 정재성, 면우 곽종석

I. 서론

어쩌면 용산범국회는 흔하디흔한 야유회처럼 쉽게 잊혀 질 뻔한 모임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1636년 중앙절에 있었던 그 모임을 누군가가 ‘용산범국회’라고 명명하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잊혀 지지 않고 조선말기에 부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이 중간에 일실되었거나 그 기록을 발견한 사람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산범국회의 발견과 부활은 극적인 측면이 있다.

당시 모임의 최 연하자 八松 鄭必達은 1636년 중앙절 당시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落帽臺에서 있었던 모임의 전말과 당시의 광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桐溪 鄭蘊은 1630년 모친상을 당한 이후 묘소 근처에 龍泉精舍를 지었는데, 그 부근에 낙모대가 있었다. 이후 정운은 벼슬살이 중에도 용천정사를 자주 찾았고, 이러한 배경 하에 그가 중심이 된 용산범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몇 달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남으로써 모임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범국회는 오랫동안 잊혀 졌다가 2백 6십여년 뒤 정필달의 후손 苟齋 鄭載星에 의해 기록이 발견되어 모임이 재결성되었다.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던 시점에 부활한 사실도 예사롭지 않지만, 이에 적극 호응한 각 집안 후손들의 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먼지 쌓인 옛 기록 속의 모임을 이어나가도록 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우선 용산범국회가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당시 회원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 초기 계획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계획이 속개되었던 배경과 함께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계획이 남명학파의 역사적 전개상에서 지니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II. 1636년 용산범국회 결성의 의미

1. 참여 인물 현황과 당시 그들의 처지

용산범국회의 존재는 八松 鄭必達이 지은 「龍山泛菊會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1636년 중앙절 용산에 모인 인물들은 아래 표와 같다.

姓名	生沒年代	字	號	本貫	居住	備考
鄭蘊	1569-1641	輝遠	桐溪	草溪	安義	내암문인
鄭緝	1571-1656	功遠		草溪	安義	봉사, 동계 제
曹挺立	1583-1660	以正	梧溪	昌寧	陝川	應仁子
曹挺生	1585-1645	以寧	陶溪	昌寧	陝川	挺立弟
曹時逸	1607-1644	日休		昌寧	陝川	정생 자
曹時亮	1603-1662	寅叔	雪洲	昌寧	陝川	성좌 증조, 윤좌벽사위
申順蒙	1569-?	亨甫	妙亭	平山	陝川	신호인 7대조, 1614원종공신
申汝亮	1598-1679	士明		平山	陝川	신순몽 자
林眞愬	1586-1657	樂翁	林谷	恩津	三嘉	盧欽외손, 내암문인
李奉一	1578-1650	應甫		碧珍	三嘉	노과 이홀 제자
李壽樟	1607-1638	村老		碧珍	三嘉	봉일자
郭弘圭	1606-?	子章		玄風	玄風	진사
李蘭美	1592-1661	幼馨	陽村	光州	星山	변창후 매제, 의병장 弘宇 조카
李灝					星山	진사
李應白	1591-?	亨淑	梅溪	星山	居昌	모계문위 문인
文誠後	1588-1641	士明	石峯	南平	居昌	모계 아들
金尙堅	1588-1665	士剛	灝溪	商山	居昌	남명문묘종사 연명

卜昌後	1591-1653	慶餘	月潭	密陽	居昌	이단미 처남
金益堅	1602-1664	叔精	梅塢	商山	居昌	문위 손서, 상견 제
崔後遠	?-1645	景雲	柱巖	興海	居昌	
鄭必達	1611-1693	可行	八松	晉陽	居昌	

용산범국회의 기록자 정필달은 모임이 열린 용산 출신으로, 1633년 생원이 되었고, 1645년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1669년까지 예조좌랑·울진현령 등 여러 벼슬을 지낸 인물이다.¹⁾ 그는 인조반정을 전후한 시기에 수학기를 보냈는데, 같은 마을에는 來庵 鄭仁弘(1536-1623)의 문인 茅谿 文緯(1554-1632)가 거주하고 있었다. 정필달은 7-8세 무렵 합천 冶爐의 東山 文景晉(1576-1647)에게 『소학』을 배웠고, 12-3세 무렵에는 진주로 凌虛 朴敏(1566-1630)을 찾아가 『시경』을 배웠으며, 인조반정 이후인 16세 때는 합천 鴨谷의 梧溪 曹挺立(1583-1660)에게 배웠다. 이들은 모두 『덕천서원원생록』에 수록된 남명학과권의 학자들이었으며, 대체로 정인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문경진은 정인홍의 문인 嶧陽 文景虎(1556-1619)의 재종제로, 정인홍이 거주하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인홍의 문인이 주도하던 삼가 龍巖書院 향사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박민과 조정립도 정인홍의 문인이며, 특히 조정립의 부친 陶村 曹應仁(1556-1624)은 曹友仁으로부터 ‘형의 내암에게 대한 존모는 내암의 남명에 대한 존모에 못지않다[兄之於來庵 不啻來庵之於南冥]’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인홍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 이들에게서 배운 정필달은 이후 정온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정온 또한 정인홍의 문인이었다. 다만 정온은 영창대군 살해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북과 각을 세움으로써 기나긴 유배생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처형된 정인홍의 시신을 수습하고 祭需

1) 정필달에 관한 정보는 그의 문집 『팔송집』과 최정은(2012), 『八松 鄭必達의 生涯와 詩世界』 참조

를 보내기도 하는 등 스승에 대한 의리는 굳건했다. 정온은 인조정권 하에서 북인계 남명학파의 리더로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하는 한편, 『산해사우연원록』 편찬의 자문을 맡거나 용암서원의 원장이 되는 등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사업에 여러 경로로 관여하였다.

용산범국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임 장소였던 거창을 비롯하여 인근의 안義·陝川·三嘉·玄風·星州 등지에 거주한 이들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은 정온으로, 가장 나이가 적은 정필달과는 42세 차이가 난다. 이들은 인조반정 이후 정온과 정치적·학문적 입장을 같이 한 인물들이었다.

모임의 시기인 1636년 가을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지 10여년이 흐른 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반정 직후에 정인홍이 적신으로 처형되고, 이후 그 문인들을 겨냥한 獄事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정인홍은 이미 처형되었으나 합천을 중심으로 한 그의 추종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으므로, 인조정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찰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반정 직후의 분위기를 정인홍의 문인 朴乾甲은 ‘경상도 사람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괴이한 일이다[慶尙道人以爲反正之後至今保全可怪也]’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는 광해군 시절 복인을 구성했던 경상우도 남명학파의 불안한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언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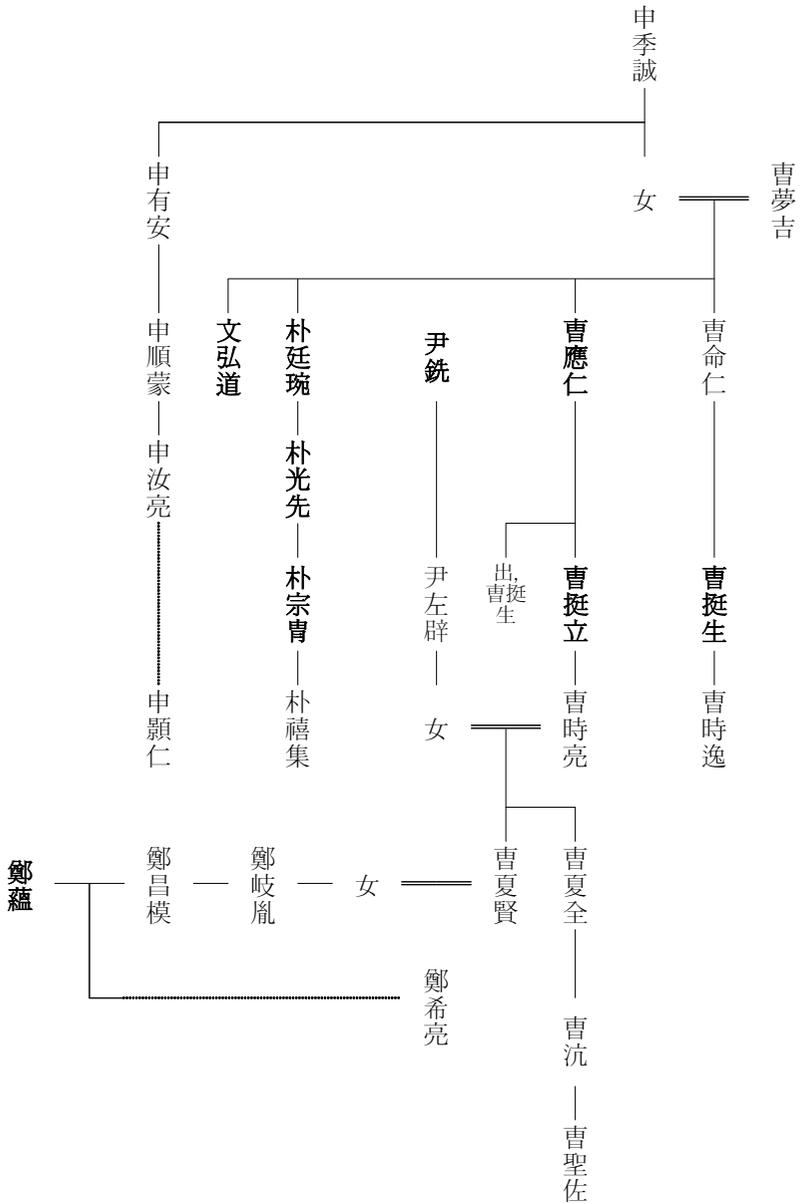
정인홍 문인들이 연루된 옥사는 크게 1624년(朴乾甲獄事)과 1631년(鄭澣獄事) 두 차례 발생했다. 1624년에는 삼가에 살던 박건갑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옥사에 연루되었고, 1631년에는 정인홍의 가계 및 그 문인집단이 대거 제거되었다.²⁾ 박건갑 부자는 이괄의 난(1624) 때 인조정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추국과정에서는 아무런 죄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정인홍과 관련된 전력이 문제시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조정권은 정인홍 문인집단이 그들의 체제를 엿을 수 있는 세력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정 이후의 환경에서 1631년 2월에는 정인홍의 再從姪 鄭澣이 주모자로 연루된 대형 옥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 陝川·高靈·居昌·三嘉·

2) 具珍成(2015), 『17세기 남명학파 동향 연구』 83쪽-99쪽

昌寧 등지에 퍼져있던 정인홍 추종세력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1) 합천지역 曹挺立 가계

합천지역에서 용산범국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조정립·조정생·조시일·조시량·신순몽·신여량이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들로, 인조반정 직후 큰 피해를 입은 가계의 일원이었다. 조정립은 합천 묘산에 거주한 曹夢吉(1521-1561)의 손자인데, 조몽길이 申季誠의 사위가 된 관계로 조정립에게 申順蒙은 할머니의 조카가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신순몽과 그의 아들 申汝亮이 조정립 가계와 함께 용산범국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립과 신순몽이 함께 광해군 등극 공신으로 수록된 사실에서, 이들이 광해군 정권 시절 정치적 입장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용산범국회 조정립 가계도> (굵은글자 : 정인홍문인)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조정립과 그의 부친 조응인 및 동생 조정생은 모두 정인홍의 문인으로 광해군 대북정권 시절 벼슬했던 인물들이다. 또한 그의 친인척 중에도 정인홍의 문인으로 대북시기 벼슬한 인물들이 많았다. 따라서 조정립 또한 인조반정 이후 정권의 주요한 감찰대상이 될 만한 여지가 농후했다.

조정립의 외삼촌 朴廷琬(1543-1613)과 文弘道(1553-1603) 또한 모두 정인홍의 문인인데, 특히 문홍도는 적극적으로 정인홍의 정치적 입장을 따랐고, 박정완의 손자 朴宗胄는 대북의 핵심에서 활동하다가 인조반정 직후 처형되었다. 이후 1631년 옥사의 주동자로 지목된 鄭漸과 朴禧集 또한 조정립 가계와 관련되는 인물들이었는데, 정한은 문홍도와 사돈 관계인 鄭仁濬의 아들이었고, 박희집은 반정직후 처형된 박종주의 아들이었다. 이 옥사에서 정한과 박희집이 처형당한 것은 물론이고, 조정립의 사돈 관계였던 尹左辟이 옥사에 연루되어 옥중에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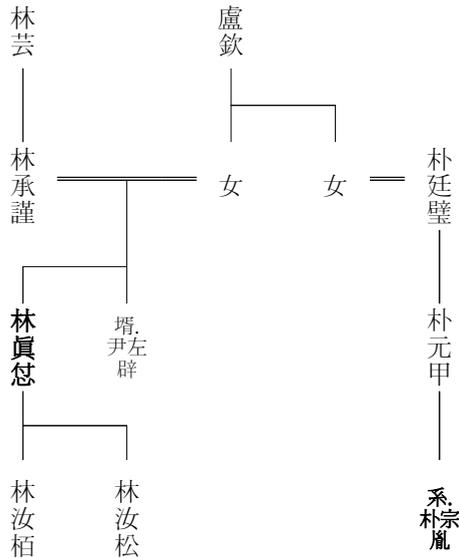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립과 인척 관계에 있던 인물들은 인조정권 하에서 벌어진 옥사의 핵심인물들이었으니, 대북정권 시절 벼슬했던 조정립으로서도 옥사에 연루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용산범국회가 열리기 3년 전인 1633년에는 정인홍의 문인으로 晦退辨斥을 지지했던 진주의 鄭暄(1588-1647)이 誣告를 당해 의금부로 압송되는 일까지 있었고, 병자호란(1636) 이후에도 정인홍 문인들을 향한 정권차원의 감찰과 탄압은 지속되었다.

2) 삼가지역 林眞愆와 李奉一

삼가지역에서 용산범국회에 참여한 인물로 임진부를 비롯하여 이봉일과 그의 아들 이수장이 있다. 임진부는 安義縣 葛溪 지역에 세거하던 은진임씨의 일족이었는데, 그의 부친 林承謹(1560-1589)이 三嘉縣 大坪에 거주하던 盧欽(1527-1602)의 딸과 혼인한 뒤로, 그 후손들이 삼가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임진부의 조부 林芸(1517-1572)과 외조부 노흠이 모두 曹植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가계적 배경을 지닌 임진부는 조

식의 사우록 『山海師友淵源錄』 편찬에 관여하였고, 1638년에는 조식을 제향하는 삼가의 龍巖書院 근처로 이주하여 강학을 지속하다가, 鄭蘊을 이어 용암서원 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임진부의 친인척 중에도 인조반정 직후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 누이의 남편이 앞서 언급한 윤좌벽이었고 이모의 손자가 고령 도진에 거주한 朴宗胤이었다. 박종윤은 인조반정 직후 처형된 박종주의 친동생으로, 그는 인조반정 이후 대부분의 생애를 유배지에서 보냈고 인조정권에서 요주의 인물로 거론되었다.



<용산법국회 임진부 가계>
 굵은글자 : 정인홍 문인

임진부는 같은 고을의 李屹에게 배웠지만 정인홍의 문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가 인조정권으로부터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1641

년 가을 지역 내 인물들에 의해 그를 위시한 삼가지역 정인홍 문인들이 ‘정인홍의 잔당으로 퇴계선생을 모욕했다’라는 무고를 입는 일이 있었다.³⁾ 임진부는 1635년 정온의 추천으로 大君師傅의 벼슬을 받았으나, 정온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와 같은 지역 내의 비방을 당하게 되었다. 사실 임진부 등을 공격한 인물은 인조반정 직후 파직된 尹銑의 후손이었다. 윤선 또한 정인홍의 주요한 문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인조반정 직후 정인홍 계열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뒤 그 후손들 간의 내분이 발생했던 정황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진부에게도 ‘정인홍 잔당’으로 몰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합천지역 조정립과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다. 임진부와 함께 삼가지역에서 용산범국회에 참여했던 李奉一은 이흥의 문인으로, 그 또한 1614년 定運原從功臣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볼 때 복인과 무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상에서 합천의 조정립 가계와 삼가의 임진부·이봉일 등이 정인홍 및 광해군 시기 복인과 관련되었던 정황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인조반정 이후 처했던 곤란한 처지를 짚어보았다. 이들에게서 정인홍이나 복인 관련 요인을 명확하게 포착해 낼 수 있지만, 그 외 용산범국회 참여 인물들을 이 범주에 소속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조정립 가계와 임진부 등 합천·삼가 지역 모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정인홍·복인의 범주에 든다면, 나머지 참여자들을 그 부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의 지역의 정온과 거창의 문위가

3) 林汝松, 『虛齋遺稿』, <遺事記草>. “辛巳秋, 舍弟赴商山監試, 余以疾獨留. 時尹喜歷訪朴昌龍于高靈獄, 聽指喉往試所. 又囑渠四寸李玟, 題以逆黨餘孽·侮辱先生, 掛停舉榜于四館. 許進士士正, 率隣近邑士友, 言于四館, 卽解釋. 凶邪之徒, 濁亂鄉中, 久矣. 以邪攻正, 以非斥是, 固不足怪也. 而構成罔測之說, 欲陷吾一家, 道中多士, 孰不駭異於聞見也. 古語曰, ‘止謗莫如自修 而無辨爲上’, 此言其自外至者, 不爲重大, 而細瑣之事也. 先君具陳右輩傷人害物之事首末, 呈單于主倅, 題數行文字, 以爲公家卞明之地, 自是以後, 頓無一言. 及於彼輩, 列邑通文, 齊至校院. 又自本院三陝士友, 致罰右輩, 遷延歲月, 奸黨散落, 皆服其過, 踵門謝罪云.”

정인홍의 문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 안의·거창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정은·문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⁴⁾

2. 인조반정 이후 동계 정은 중심의 남명학과 재편

용산범국회는 남명학과 중에서도 정인홍 계열의 인물들이 핵심을 이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정립과 임진부는 각각 합천과 삼가 지역에서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 관련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인물들이 1636년 정은을 중심으로 모인 사실에서, 인조반정 이후 잔존한 정인홍 계열의 남명학파가 동계 정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일별할 수 있다. 정은은 광해군 시절 대북에 반하는 의견을 내어 오랜 기간 유배되지만, 인조반정 이후의 환경에서 그러한 前歷은 오히려 공훈이 되어 잔존한 남명학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정은은 1614년 영창대군 사건의 처리를 두고 대북과와는 다른 의견을 내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정은을 기점으로 정인홍의 문인들이 대북과 중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인조반정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문인 중 대북에 속했던 상당수의 인물들이 제거되는 상황을 맞게 되고, 남은 문인들은 정은을 중심으로 모임을 형성했던 것이다. 정은은 조정에 있으면서 이흠·임진부 등을 천거하였고, 지역 내에서는 삼가 용암서원 원장을 역임하거나 김해 신산서원 원장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반정 이후 남명학파를 주도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반정 이전까지 정인홍이 지녔던 남명학과 내에서의 위상을 정은이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조반정 이후 정은을 중심으로 남명학파가 재편되는 상황의

4) 성주 지역 참여자 李蘭美는 성주 의병장 李弘宇의 조카인데, 『亂中雜錄』에 의하면 이홍우는 정인홍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작전을 수행한 인물이다. (『난중잡록』 「壬辰上」. “陝川義兵大將鄭仁弘與假將金俊民, 領軍二千八百餘名, 邀擊安彥之賊盡殲之時, 俊民初來, 未有所試. 星州加利縣李弘宇軍在伊傳山, 高靈陝川軍在伽川(星州西面村名), 文勵軍亦在星州, 咸聽仁弘約束”)

일면을 보여주는 모임이 용산범국회였다. 조정립의 경우 광해군 시절 대북적 색채가 뚜렷했지만 정온 등 참석자들과 위화감없이 어울리고 있는 사실에서, 대북·중북을 막론하고 살아남은 정인홍의 문인들의 적응 양상을 보여주는 모임으로 판단된다. 조정립 외에도 조정생·신순몽·이봉일 등도 대북 정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이 광해군 등극에 공로가 있는 인물들을 기록한 『定運原從功臣錄券』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1614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을 분류하였는데, 앞에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정온원종공신 1등’에 수록되어 있다. 광해군 시기 정인홍이 지녔던 산림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공신록에 수록된 인물들 또한 정인홍과 무관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인홍의 근거지였던 합천·삼가 출신의 인물이 공신록에 이름이 올랐다면, 정인홍의 의사에 반하는 인물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정인홍의 문인이었던 전력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과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산범국회가 열린 거창 용산은 잔존한 정인홍의 문인들이 대북으로 활동한 전력을 회색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정온의 용친정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북의 입장에 섰던 文緯(1554-1632)가 태어나 거주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문위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정인홍에게 집지한 문인으로,⁵⁾ 그가 기록한 『모계일기』에는 의병대장으로서 정인홍의 활약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후 문위는 영창대군 관련한 정온의 입장을 지지했고, 이 때문에 대북파의 탄핵을 받게 되었다. 문위와 정온 등의 반 대북적 전력으로 인해 용산은 인조정권 하에서 정인홍 문인의 안전이 어느 정도는 보증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조정권 하에서 정온이 지녔던 정치적 위상으로 인해 용산범국회가 성립한 것이지만, 그가 일생에 걸쳐 발휘했던 節義 또한 그가 남명학파의 구심점이 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정온이 일생에 걸쳐

5) 文緯, 『茅谿日記』 1590년 3월 6일조. “作行鷲山, 歷訪叔彬, 暮投遯坪, 拜萊菴. 性源君變子復及其伯丈同宿.”

발휘한 절의는 학문의 철두철미한 실천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조식이 그 정점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남명 학문의 핵심적인 계승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당대 남명학파의 宗主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북정권 하에서 정온이 언제 解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용산범국회는 인조정권 하의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제기한 용산범국회가 간존한 정인홍 계열의 연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가설은,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후손들에 의해 1728년 무신난이 주도되었던 사실에서 어느 정도는 증명된다고 여겨진다. 인조정권에 가장 적대적이면서도 강성한 세력을 지녔던 정인홍 그룹들은 반정 직후 10여 년간의 옥사를 통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피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정인홍 문인들 또한 겉으로는 용산범국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적응을 모색했을 터이지만, 부당한 정권찬탈에 대한 분노는 없앨려야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들의 스승 정인홍은 임진왜란의 전쟁 영웅이자 남명학파의 영수였으며, 광해군 정권의 산림이었다.

용산범국회 이후로도 정온의 증손녀와 조정립의 손자가 혼인을 하는 등 두 집안의 유대는 돈독하게 유지되었으며, 급기야 정온의 후손 鄭希亮과 조정립의 후손 曹聖佐가 연합하여 무신란 때 거병하기에 이른다. 인조반정 이후 영남인, 특히 강우지역 남명학파에 대한 지속적인 소외와 차별이 이들의 거병 동기였고, 한편으로는 대를 이어 유전된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그들의 심리에 기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용산범국회 참여자들의 특징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남명학파의 역사적 전개상에서 용산범국회의 의미(구진성)

거주	姓名	정인홍 문인여부	복인적 특징	남명 조식 관련 사항
안의	鄭蘊	문인	中北	용암서원 원장. 덕천원생록
	鄭緜			
합천	曹挺立	문인	정운공신1등	1657년 덕천서원 원장
	曹挺生	문인	정운공신1등	덕천원생록
	曹時逸			덕천원생록
	曹時亮			덕천원생록
	申順蒙		정운공신1등	
	申汝亮			
삼가	林眞愆	문인		용암서원 원장. 덕천원생록. 남명문묘종사
	李奉一	이흘문인	정운공신1등	남명문묘종사
	李壽樟	이흘문인		
현풍	郭弘圭			
성산	李蘭美			성주의병장 李弘宇 조카
	李灝			
거창	李應白	문위문인		형 李應時가 남명문묘종사 청원
	文誠後	문위아들		
	金尙堅			남명문묘종사 청원 연명
	卞昌後			이난미 처남
	金益堅	문위손서		
	崔後遠			
	鄭必達			

Ⅲ. 조선말기 용산범국회 재결성과 그 의미

1. 구재 정재성과 용산범국회 재결성

용산범국회는 병자호란 이후 지속되지 못하다가 1900년 무렵 八松 鄭必達의 9대손 荀齋 鄭載星(1863-1941)의 주도로 재조직되었다. 정재성은 그의 선조 정필달의 유고 『八松集』을 정리하여 1902년 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필달이 남긴 용산범국회 관련 기록인 「용산범국회서」를 발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재성은 선조의 기록에 근거하여 1900년 참여한 집안의 후손들에게 연락을 돌려 조직을 만들고, 1911년에는 옛 용산범국회 회원들의 명단을 돌에 새겨 낙모대 서쪽에 세웠으며, 1930년에는 용산범국회의 전말과 桐溪 鄭蘊 등 초기 회원들의 전기 자료를 묶은 『龍山泛菊會錄』을 합천 묘산면에서 간행하였다.⁶⁾ 이후 1941년에는 정운의 후손 鄭漢紀 등이 주도하여 용천정사에서 각 후손들의 명부를 작성하였고, 이후 후손 명부는 1996년에 추가되었다.⁷⁾

용산범국회의 재결성을 주도한 정재성은 정필달의 9대손으로 거창의 加北 茶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양이고 자는 聚五, 호는 草韋·荀齋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인데다가 독실히 공부하여 주위의 기대를 모았지만, 科擧의 혼탁한 실상을 접하고는 시험보기를 그만두었다. 어릴 적부터 寒洲 李震相을 찾아가 문인이 되었고, 張福樞·李種杞·尹胄夏 등에게 배웠는데, 1896년 俛宇 郭鍾錫이 거창 다전으로 이주한 뒤로는 마치 부형을 받듯 가까이서 배우게 되었다.

6) 鄭載星, 『荀齋集』 권10 「泛菊會錄跋」: 迺於庚子(1900)秋 諸賢後仍 集契以續之 後十二年 而樹碑以紀其蹟 至是又哀會事顛末 及諸賢狀碣爲一冊 署曰泛菊會錄 方付手民以壽傳覽之者 恍若起諸賢於九原 烏紗道袍對黃花以序坐秩秩有容 吁可敬也 如或後仍之 每重九赴會 不思所以趾美 而徒留連酒食 則不惟視爲淵明愈僞 不亦爲孟萬年所笑耶 是 杞不可不戒也 終始斯役者 曹基文·申彥警·崔邦煥 及門叔寅煥翁甫 而咸以吾八松先子舊 爲序 仍屬余以跋之 遂不揆僭越 庸附一言于卷末云 庚午重陽 晉陽鄭載星謹識

7) 『龍山泛菊會誌』全, 「後孫名錄」 참조

정재성은 25세 되던 1887년부터 부친상을 당하는 1894년 무렵까지 한양에 거주하면서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이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903년 스승 곽종석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갈 적에 그가 배종하면서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훗날 곽종석 몰후에는 『면우집』을 한양에서 간행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스승을 배종하러 갔던 당시에 그의 명망이 조정에 알려져 1904년까지 貞陵參奉, 慶基殿參奉을 지냈다.

이 시기는 일제가 국권을 서서히 침탈해 가던 때였는데, 아래 제시하는 그의 행록에서 당시 조선의 상황과 그러한 시대에 맞닥뜨린 정재성의 인식과 대응이 잘 드러난다.

이 해(1903)에 조정의 신하들이 공[정재성]이 스승을 따라 입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릉참봉에 추천하여 특명으로 임명되었다. 곧이어 영회전참봉에 임명되었으니, 이것은 淸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경전참봉·경기전참봉에 임명되었다. 몇 개월 내에 연달아 恩命을 받으니 감격하고 황송하여 몸을 돌 곳을 몰랐다.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직분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를 맹세하였으나, 세상은 붕괴되고 시사는 더욱 그릇되어 가니 오래 머무르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임하고 물러나는데 어떤 이가 공을 위해 만류하였다. 그러나 大韓이라는 국호는 엄연히 있었으나, 나라의 국권은 이미 동쪽 오랑캐의 손에 의해 조종되는 물건이 되어 조정에 가득한 신하 누구도 감히 따지지 못했다. 그래서 공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 사신을 목베기를 요청하고 또 鄉約을 반포하여 시행하기를 건의하였으나, 모두 관례에 구애되어 답을 얻지 못했다.

이윽고 을사늑약(1905)을 당하자 스승이 대궐에 나아갔으나 임금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물러나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공이 왕래하며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교유 윤주하, 대계 이승희 등과 함께 상소문을 갖추어 大義를 표명하였는데, 이로 인한 재앙을 예측할 수 없었다. 또 스승의 명으로 지역 내 의연금을 모아 경성의 의무소로 보내어 나라빛을 보상하는 데 충당하였다.

정미년(1907) 조정의 정승이 여러 적신들과 함께 황제를 협박하여 禪讓하도록 했다. 공은 엄한 목소리로 준엄하게 꾸짖어 말하기를 “공은 국가의 지주석이 아닌가? 어찌 차마 이 지경으로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않았다. 또한 집안의 어떤 자제가 스스로 일본수신사로 갔다가 돌아와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열어 축하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은 그 일을 듣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즉시 그곳에 가서 호통치기를 “너는 벼슬한 분의 후손으로 이러한 망동을 저지르고 도리어 영화롭게 여기느냐?”라고 하고 통곡하며 돌아갔다.

무신년(1908) 향교에 들어가 명륜당에 있으면서 구폐를 혁신하고 學規를 정하였다. 이 해에 팔송과 김송천을 양호서당에 제향했다.

이듬해(1909) 고을의 선비들을 이끌고 국민회와 소위 통감부에 투서해서, 일진회 매국노들을 목베기를 청하였다. 대개 충성스런 본노가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세상에 뜻이 없어 오직 후배들을 가르치기를 일삼았다.⁸⁾

정재성은 일제에 무너져가던 조선의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벼슬하는 동안, 당시 조정에서 국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일본 사신들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그들을 목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을사늑약을 당하자 스승 광종석을 도와 그를 주동한 신하들의 誅罰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다. 또한 스승의 명으로 국채를 보상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도 하고, 1907년에는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신하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였으나, 대세는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국권침탈기에 이와 같이 대응했던 정재성이 용산범국회를 재결성하였던 것이니, 그 지향점이 단순한 친목 모임에 있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정재성은 1636년에 있었던 용산범국회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8) 鄭載星, 『苟齋集』 권14 부록, 崔薰教의 <行錄>. “是歲 朝紳聞公之陪師門而入闈 薦除貞陵參奉 特命調用 尋拜永禧殿參奉 蓋清選也 未幾 拜肇慶廟 慶基殿 數月之內 荐承恩命 感激凜盛 靡所措躬 恪勤奉職 誓報涓埃 而見世級壞決 時事轉 非 難於久留 故解任而退 人或爲公留之者 然大韓之位號自在 而宗社大柄 已爲東夷掌中操縱之物 滿朝臣隣 莫之敢誰何 故不勝憂憤 請誅日使 又請領行鄉約 并皆拘於俗例而無報 已而 五條脅約成 師門進不獲登對 退而封疏章 公往來通報焉 因從尹膠宇·李大溪諸公具疏 申之以大義 禍幾叵測 又以師門命 選聚域中義捐金 輸送于京城義務所 以充國債之報償 丁未(1907) 有宰臣與諸賊臣 脅帝以內禪 公嚴辭峻責曰 公非國之柱石乎 胡忍叛背至此 絕不復與通 又有所親子弟 自爲日本修信使 而還會闔族 置酒相賀 公聞不勝憤歎 卽入大呼曰 汝以世臣後裔 作此妄行 反以爲榮乎 痛哭而歸 戊申(1908) 入校宮 居明倫堂 革舊弊 定學規 是歲 萊享八松及金松川于陽湖書堂 明年(1909) 倡鄉土投書國民會 及所謂統監府 請斬一進會賣國徒輩 蓋由忠憤之不能自己也 自後無意於世 惟以教授後進爲事”

중앙절에 국화를 띄운 지는 오래되었다. 孟嘉가 취해서 모자를 떨어뜨린 이야기나 陶淵明이 백의인을 만난 일화는 모두 국화를 빌어 흥취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주렴계가 도연명을 일컬어 국화를 사랑한다고 한 것은 어찌서인가? 대개 국화라는 꽃은 평범하지도 무리짓지도 않고 바람 서리가 교대로 공격해도 매서운 향기를 더욱 뽑어내니, 대장부와 같이 지나치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옛 인물에서 찾아보면 오직 도연명 선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찌 맹가와 같이 방탕한 무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다같이 국화를 띄웠다고 해도 그 기질과 취향 또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승정 병자년 용산의 모임은 지명이 우연히 맹가와 같지만, 제현들이 국화를 띄워놓고 마시고 읊조렸던 것은 도연명과 시대는 다르지만 뜻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다. 돌아보건대 陽九의 재앙을 우연히 만나 태평성대의 운이 바뀌는 것이 어찌 이리도 짝나라 말기와 같으며, 서쪽의 기운이 심히 나빠진 것이 寄奴가 날로 왕성해짐과 같을 뿐이겠는가? 이에 제현들이 깊이 근심하고 크게 탄식하면서 「匪風」·「下泉」과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에 동지들을 데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 국화를 따서 술에 띄워, 아득히 멀리 우주를 바라보고 통틀어 고금을 깊이 생각하며, 인간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움을 탄식하다가 아름다운 흥취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계를 만들어 장차 해마다 시행하고자 하였으니 대개 寒花晚節의 뜻을 부친 것이다. 이 해 연말에 동계선생은 남한산성의 변란을 당하여 작은 몸으로 만고에 綱常을 부지하셨으니 늠름함이 秋霜烈日과 같았다. 다른 분들은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며 마음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면서 모두 崇禎의 完人이 되고자 하셨으니, 이 모임에는 어찌 이리도 현인이 많은가!⁹⁾

9) 鄭載星, 『苟齋集』 권10, <泛菊會錄跋>. “重陽之泛菊, 古也. 如孟萬年之落帽, 陶靖節之遇白衣, 皆藉菊以爲趣. 然濂溪子稱靖節獨愛菊, 何哉. 蓋菊之爲花, 不凡不類, 風霜交攻, 而烈烈愈芳, 有似乎大丈夫, 不淫不奪. 以是, 求之於古, 則惟靖節先生是矣. 而豈萬年放曠輩之所可同日語哉. 然則同一泛菊而氣類趣尚, 又不可不論也. 嗚乎, 崇禎丙子之龍山會, 地偶似乎萬年, 而諸賢之所觴詠乎菊者, 可謂與靖節異代而同符矣. 顧遭值陽九, 雙明運移, 何其似典午之末, 而西氛甚惡, 不翅猶寄奴之日盛, 此諸賢之隱憂浩歎, 匪風下泉, 無日不發於歌詠也. 於是, 携同志, 就勝地, 擷黃花, 浮白醪, 悠遐矚於宇宙, 洞玄思於古今, 慨塵世之難逢, 喜佳興之與同, 而繼文設契講信, 將歲以爲常者, 蓋寓寒花晚節之義也. 是年之季, 桐溪先生, 當南漢之變, 眇然尺軀, 扶綱常於萬古, 凜乎如秋霜烈日, 至餘諸賢, 或出或處, 澡心潔躬, 要皆不失爲崇禎完人, 則是會也, 何其多賢也.”

정재성은 당시에 있었던 계획이 결코 유흥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정필달이 쓴 서문은 참여자 개개인의 학문적 지향이나 계획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한 구절은 찾기 힘들고, 당시의 풍광을 탐미적인 필치로 그려낸 구절이 많다. 그러나 정재성은 1636년 중앙절 당시 계획의 성격을 憂國之士들의 모임과 같은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일제강점기 상황 하에서 정재성 본인의 지녔던 의식과 관련이 있다. 병자호란 당시 정은이 보여주었던 만고에 빛나는 절의와 기개를 찬양하였고, 여타 참여자들이 대명의리를 지켰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를 사는 儒者가 지향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일제강점기 ‘동계 절의’ 추송의 의미

용산범국회의 당대적 지향은 그들이 단체로 의견을 표명한 글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공동 명의로 1919년 곽종석의 장례 때 영전에 致奠文을 바친 적이 있다. 곽종석은 파리장서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다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거창 다전 如齋였는데, 장례를 치르기 전날 靈柩가 낙모대가 있는 용산에 닿았다. 이 당시 정재성 등 용산범국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공동명의로 제문을 올렸다. 이 당시 참석한 이들은 鄭載星·卞源彩(변창후 9대손)·鄭然遇(정은 호손)·卞源福(변창후 후손)·林台煥(임진부 후손)·金奎澤·申泰教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1636년 용산범국회 참여인들의 후손들로 보인다. 제문을 지은 사람은 임진부의 후손 임태환이었다. 임태환 또한 일제강점기 하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공동으로 올린 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미년(1919) 8월 24일, 우리 대한의 微士 侁宇 郭先生께서 茶川書堂 如齋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10월 초하루날 사람들이 광성리 문교산 묘좌 언덕에 모여 장례를 치룹니다. 그 하루 전날 무인일(9월 30일) 靈柩가 龍山을 지나며 龍泉精舍에 잠시 멈추니, 용산범국계 유생 鄭載星·卞源彩·鄭然遇·卞源福·林圭煥·

金奎澤·申泰教 등은 삼가 片脯의 제물을 갖추어 영구 앞에 재배하며 통곡합니다. 아! 선생께서 갑자기 이렇게 되셨습니까? 천부의 자질은 위대하지만 도는 궁하였으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기 보이는 용산에 옛 선현께서 자취를 남기셨으니, 이에 계를 만들어 ‘泛菊’이라 이름짓고 해마다 중앙절에 제사를 올립니다. 우리 동계 선생은 大義를 천명하셨고, 할복하고 돌아와 은거하시며 홀로 대명의를 지키셨으니, 높이 솟은 龍泉精舍는 영원히 藏修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저녁 선생의 靈柩가 머무르니 그 충심은 동계 선생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병자년(1636)이고 지금은 기미년(1919)이지만, 두 분이 만난 시대 상황은 같으니, 임금 사랑과 백성 걱정만으로 온몸을 채운 분들입니다. 喪輿를 모시고 가는 때가 바로 9월이니, 후학들이 느끼는 비통함은 더욱 큼니다. 삼가 포와 과일을 올리며 우러러 호모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아! 슬픔입니다. 흠향하소서.¹⁰⁾

과리장서사건 때 목숨을 걸고 사건을 주도한 광종석의 행위가 정온이 보인 절의의 연장선에 있다는 취지의 제문이다. 정온·광종석 모두 이민족 침략기에 절의를 보인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제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했던 정재성과 임태환으로서는, 정온이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에서 되살려야 할 정신을 지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광종석에게 바치는 제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정온의 절의를 서술한 것이다.

일제시기 용산범국회 회원들에게 정온은 그들의 선조이거나 선조의 교유인이 된다. 그들은 계획에 참석할 적마다 혹은 용산을 지날 때마다 정온의 절의를 추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계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며 사적비를 보고 정온을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1930년 李中轍이 쓴 「龍山泛菊會錄序」에서 선명히 표현하고 있다.¹¹⁾

10) 林台煥, 『睡語』 卷1, <倪宇郭先生致奠文(龍山泛菊稷儒生等)>. “歲己未八月二十四日壬寅, 我韓徵士倪宇郭先生棄諸生于茶上如齋. 粵十月己卯朔, 士林會葬于廣星里文教山卯坐之原. 前一日戊寅, 路次龍山, 停柩精舍, 菊契儒生鄭載星·卞源彩·鄭然遇·卞源福·林圭煥·金奎澤·申泰教等, 謹具片脯之奠, 再拜慟哭于靈柩之前曰. 嗚乎! 先生遽至斯耶. 賦大道窮, 天亦難推. 睽彼龍山, 先賢遺躅. 爰有契資, 其名泛菊. 黃花重陽, 歲一裸薦. 惟我桐翁, 大義斯闡. 割腹歸臥, 獨保大明. 精舍巍然, 百世修藏. 今夕停紼, 膺合厥衷. 古丙今己, 遭時亦同. 愛君憂民, 俱是腔血. 陪隨輻行, 矧茲九月. 後學之感, 尤增悲愴. 謹以脯果, 庸伸欽仰. 嗚乎痛哉! 尙饗.”

IV. 결론

이상에서 용산범국회의 의미를 초기(1636)와 후기(조선말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636년 중앙절에 이루어진 계회에 참석한 인물들은 대체로 남명학파이며, 그중에서 정인홍 문인 및 그 계열로 간주할만한 인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운(안의)·조정립(합천)·임진부(삼가) 등 각 고을을 대표하는 참여 인물들이 모두 정인홍의 문인이었다. 다만 광해군 시절 정운은 영창대군 사건과 관련하여 대북과 의견을 달리한 까닭에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었고, 이러한 전력이 인조정권 하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대북이면서 인조정권 하에서 살아남았던 조정립은 정운과 연합하여 적응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며, 따라서 용산범국회는 잔존한 정인홍 계열의 연대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에는 世誼가 지속되었고 급기야 무신난에 때 정운·조정립의 후손들이 나란히 거병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인조반정 이후 유전된 정권을 향한 적대감이 큰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계회는 병자호란 이후 이어지지 못했고, 정필달의 기록을 통해서만 용산범국계의 존재가 전해지다가 1900년 무렵 정필달의 후손 정재성에 의해 계회가 재조직되었다. 정재성은 9대조 정필달의 원고를 수습하다가 계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재성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인데다가 젊은 시절 몇 년간 한양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국내 정세에 밝았다. 그는 당시 진행 중이던 일제의 국권 침탈에 분노하며 스승 곽종석과 함께 여러 경로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대응 태도를 보인 정재성은 용산범국계를 당대로 소환하여 재결성했다. 그는 그 계회에 참여했던 선조들이 시대를 고민하고 절의를 보였던 행적들에

11) 李中輓, <龍山泛菊會錄序>, 『泛菊會錄』. “雖然向無後裔再倡之舉, 則遺芬勝蹟, 或幾乎息矣. 今行旅之過是臺者, 必曰某某賢嘗杖屨於斯, 文士之寓目是篇者, 必曰某某賢嘗咳唾於斯, 指點胥顧, 摩挲起敬, 則諸家之有是孫續是事者, 豈不爲榮且幸歟.”

큰 의미를 두었는데, 이는 다분히 자기 당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이었다. 그를 비롯한 용산범국회 회원들은 당시를 정온의 절의가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으며, 파리장서사건을 주도하고 옥고를 치르다 작고한 곽중석이 정온의 절의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특기하였다.

정온과 곽중석은 모두 남명학의 주요 계승자이다.¹²⁾ 초기 용산범국회의 구성원들은 정인홍 계열의 남명학과였고, 후기 용산범국회가 추승한 곽중석의 선조 郭有道는 정인홍의 문인이 있었다. 비록 인조반정과 무신난을 거치며 남명학과는 위축되었지만, 용산범국회의 후손들은 그 선조들의 절의를 당대에 되살리고 있었다. 이는 긴 시간 경상우도 지역에서 대를 이어 전해진 남명학파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해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2) 李相弼(2005), 논의 참조

참고문헌

『龍山泛菊會誌』

文緯, 『茅谿日記』

鄭必達, 『八松集』

林汝松, 『虛齋遺稿』

鄭載星, 『苟齋集』

林台煥, 『睡語』

『德川院生錄』

『定運原從功臣錄』, 1614년

李相弼(2005),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최정은(2012), 『八松 鄭必達의生涯와 詩世界』,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具珍成(2015), 『17세기 남명학파 동향 연구』,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Abstract

The Meaning of "YongsanBeomgukhoe"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Nammyeong School

Gu, Jin-seong

YongsanBeomgukhoe is a group formed around Jeong,On in 1636. Jeong,On was exiled after claiming a different opinion from Big-North Party in King GwangHae period. However, this history have led to the centerpiece of the Nammyeong School after coup of the king Injo. Jeong,On succeeded the status of teacher Jeong,In-hong, and was involved in various projects within the Nammyeong School, which took place after coup of the King Injo. Considering the role of Jeong,On, YongsanBeomgukhoe has the combined characteristics of Jeong,In-hong's disciples, who survived after King Injo. Yongsan-Beomgukhoe had not been resumed for a long time since the first meeting in 1636, but due to the record left by Jeong,Pil-dal, it could be re-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person who led the meeting was descendant Jeong,Jae-seong of Jeong,Pil-dal. They succeeded the spirit of Jeong,On and wished for the revival of the spirit of Jeong,On in Japanese colonial era. They assessed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wak,Jong-seok succeeded Jeong,On.

keywords :

Jeong,On, YongsanBeomgukhoe, Nammyeong School, Coup of the King Injo, Jeong,In-hong, Jeong,Pil-dal, Jeong,Jae-seong, Kwak,Jong-seok

